

조계사청년회 집전대회 개인 최우수상 이정림씨

“계정 정량 해양 해탈항 해탈지견 항~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3월 29일 저녁 7시 30분 조계사 법당에서 청년불자들이 남모르게 갖고 닦은 집전 손치를 선보인다. 조계사 청년회 주최로 열린 제4회 집전대회 현장이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 다섯 번째로 출전한 고람입씨(조계사 신도회)가 오세주지를 빠뜨리고 정근부터 시작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 쌍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개인부문 10명과 단체부문 5개 팀이 출전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는 오세주님과 석가모니불정근을 한 이정림씨가. 단체부문 대상은 예경을 올린 조계사청년회 선정부가 차지했다. 조계사 신도회에서 유일하게 단체팀으로 출전한 인로왕법등은 장엄염불과 축원을 해 특별상을 수상했다.

박봉영 기자

스리랑카 불교보호 위해 개중반대법안 승인할듯

대표적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5월에 ‘타인에게 종교를 전해서 개종시키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개중반대법안이 승인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자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전도하거나 가르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는 서구를 비롯해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스리랑카 불자들을 경제적으로 위기에 개종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법안을 통해 스리랑카 불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강유신 기자

불교대학발전 공청회

동국대 8일 덕암세미나실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4월 8일 오후 2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불교대학 교육목표’를 주제로 ‘불교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각화사 주지 해담스님의 사회로 진행된다. 종교학교 관리 위원 해담스님이 ‘출가자 교육목표’를, 이병래 충북대 교수가 ‘재가자 교육목표’를 각각 발제한다.

한편 동국대 이사회는 3월 29일 208회 이사회를 열고 1906년 명진학교 설립을 이끈 홍철조 스님을 동국대 초대 이사장으로 공식화했다.

조용수 기자

‘재미·교육효과’ 함께 노려라

전국 초중고교가 3월 26일부터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과 단체는 물론이고 박물관 기념관 체험학습장과 종교단체들까지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포교가 미래 불자를 양성하

는 근간임을 생각한다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스님과 전문가들은 불교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아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담’, ‘참선’, ‘템플스테이’, ‘사찰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특성화’한다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 5일 수업, 불교계 이렇게 준비하자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광주 선덕사(주지 행법)는 아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불교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들의 고민을 풀어줌과 동시에 집중력을 높여줌으로써 학습능력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비록 월1회에 불과한 상담이지만 나머지 30일을 일차로 쉼 없이 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 사찰학생회나 청년회 선배들이 들려주는 ‘공부경험’도 공부하는 마음을 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사찰들이 지역 학교와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 분명하다.

사찰에서 준비하는 나의 미래

얼마 전 <문제는 항상 부모에게 있다>는 책을 낸 서광 스님은 서울 불광사와 봉은사 등지에서 강의와 철학 강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미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강의는 온 가족이 함께 들어도 손색이 없다. 사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각종 강연과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은 특히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초6, 중3, 고3 등의 아이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만 되면 조만간 “절에서 들었던 스님 강의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소개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게 나올 듯하다.

상담·참선·기행 등 프로그램 특성화해야 관심사항 파악...가족단위 행사 준비를

직접 즐기는 체험교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4월부터 ‘불교생태학교’를 주5일 수업에 맞춰 매일 마지막 주말에 실시한다. 사찰인근 생태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갯벌 탐사와 철새 관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미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강의는 온 가족이 함께 들어도 손색이 없다. 사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각종 강연과

좋은 국보와 보물, 지방문화재 등이

준비한 사찰을 돌아보며 역사를 배운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 책에서 보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르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모임 맑고향 기쁨게(대표 박정)가 4월부터 실시하는 ‘전국 숲기행’과 같은 프로그램이 좋은 예다.

가족단위 대화 통해 정(情) 돈독

평창 극락사(주지 자용)는 주5일

수업 시행에 맞춰 3월 26일 가족

법회를 열었다.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부족한 것을 감안해 간단한 법회 뒤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는 초등학교 4년생까지는 레크리에이션을 위주로, 초등학교 5년생부터 중고학생들까지는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영어와 한문교실, 초정강의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즈넉한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아이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불교계가 알찬 내용을 마련하면 주5일 수업의 ‘전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우·유철주 기자**

도움말 = 일관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금강 스님(해남 미항사 주지), 행법 스님(광주 선덕사 주지), 자용 스님(평창 극락사 주지), 김광호(문화사 초등불학교과장), 윤예중(해남 대흥사 기획과장), 최경애(불교환경연대 총무국장), 김자경(맑고향기행게 기획실장)

천태종, 비닐 100톤 묘목 신고 북으로

농사용 비닐 100톤과 묘목 1만 그루를 실은 18톤 트럭 6대가 3월 29일 통일의 관문인 파주시 도라산 출입국 관리소를 출발해 개성으로 향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이 이날 북



한 영동사복원위원회로 전달한 농사용 비닐은 개성 영동사 주변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은행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적단풍나무, 소나무, 밤나무 등 묘목들은 영동사 주변 야산 녹화 및 진입로 조경용으로 식수될 예정이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방북에 앞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함께 잘살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동화사 복장유물서 고려 경전 5점 확인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는 지난해 대웅전 삼존불에서 나온 120여점의 복장유물 가운데 <상지은니(紙線銀泥)대보좌경 권 제94(사진) 등 사경 2점과 목판본 경전 3점이 고려시대 것으로 확인됐다고 4월 1일 밝혔다.

지나해 대웅전 삼존불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5점의 경전 외에도 조선시대 성종 때(1474년) 간행된 <지장보살본원경> 등 경전류 100여점과 진신사리 등 120여점에 달한다.



대법회'를 열어 이들 유물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익은 기자**



종교지도자들이 3월 26일 독도에서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종교지도자들 독도서 日 규탄

중지협, ‘일본사죄·정부 적극대응’ 촉구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주권침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부장 무관 스님 등 종교지도자들이 독도에 모여 “일본 규탄”의 한목소리를 냈다. 7대 종교 대표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는 3월 26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주권침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지협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시아 국가 피해민들은 국제연합과 연대해 국제법정에서 일본의 역사적 잘못을 심판하는 데 나설 것 ▲일본정부는 진실을 왜곡, 우호적인 관계를 위협하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주권침해,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 중지협은 이어 “대한민국 만세”를 세 차례 외친 뒤 순교자비에도 묵념했다. 협의회는 또 현직 주재 독도경비대에 급일봉을 전달, 이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독도를 둘러봤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무관·사서실장 심경 스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성규 대표회장, 천주교 대구교구의 사무처장 조규만 신부, 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 이명신 교무, 성균관 최근덕 관장, 천도교 김동환 교령 대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독도=공동취재단

대학신입생 개신교-불교-가톨릭順

대학생신교회, 전국 20만명 대상 종교현황 설문

한국대학생신교회(이하 C.C.C)가 올해 3월 2~11일 전국 300개 대학 20만 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종교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교(21%)가 개신교(22%)보다 근소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종교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가톨릭 11%, 기타는 2%였다.

이번 설문은 서울 강릉 청주 광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등 8개 도시에서 표본추출한 355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9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한국갤럽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나타난 무교(43%) 불교(26.7%) 개신교(21.6%) 가톨릭(8.2%) 기타(0.6%)와 비교해 차이가 난다. 하지만 C.C.C 조사결과는 오차범

위 내에서의 근소한 차이로 하더라도 대학생 등 젊은층의 불교세가 개신교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 젊은층 포교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연 기자**

탈북자 사회적응 돕는다 원주 명문사회복지관

원주 명문사회복지관(관장 현각)이 4월부터 원주시 거주 탈북자들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누리터 만들기’를 운영한다.

‘누리터 만들기’는 컴퓨터 교육에서부터 이력서 작성교육, 산업체 견학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지역문화탐방이나 취미교실 등 통해 남한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한명우 기자**

해인사 실버타운 인수 또는 투자(또는 공영)하실 분 구함

인수의 개요

●인수대상물

- ① 현재 운영중인 유료양로원 해인사실버타운. 대지 1,800여평과 건평 1,600여평(15평형 62세대, 32평형 15세대)
- ② 신축중인 건물(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음)이며 대지 1,650평과 건평 1,600여평(25평형 70세대)

●인수가격

- ①의 건물은 70억원이상(단, 입주회원책임시 55억원이고, 2001년 5월 31일 본인이 인수시 가격은 63억원임)
- ②의 건물은 25억원 이상임(합계 90억원이상이며, 입주자 책임시 75억원 이상임) 단, 해인사 실버타운 입주자, 이 시설의 퇴소자 및 채권자에게는 우선하여 최소 인수가격(90억원)으로 양도함.

●운영 및 현황

1997년부터 입주된 회원이 태반이며 종신형(평생회원)으로서 입주금을 낸 후 남은 금액이 15억여원 정도이며, 현 입주세대는 35여세대이고 (최소 신성한 10여세대외), 남아있는 공실로는 15평형이 35세대(1인당 입주금이 8천만원)이고 32평형이 7세대(입주금 1억 5천만원)이며 현재는 이 시설이 개인소유(순수개)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용도변경이 가능하고(5년 기한이 넘었으므로) 평화은행에서 초기 건축자금으로 대출시 설정된 30억원 한도액 1순우선저당을 이전에 갈 수 있음(1998년 발표된 유통화 자산평가 근거함)

●인수방법

인수의향서제출시[2005. 3. 20 - 2005. 4. 20]에 한하여 최고가에서 인도 결정함.

●위치 및 주위 환경

· 위치는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341(및 344, 344-1)이고 주위로는 해인사 땅이며 이 시설부지에도 6,500여평의 활용가능한 본인토지(추후 복지시설 활용목적으로 구입) 및 골프연습장이 있고 추후 지방국도 59호선이 지나가는 요지입니다.

· 주위환경으로는 가야산은 협곡에다 고분군림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평지가 거의 없는 편이나 단지 해인사 본당쪽과 이곳 마당동은 10만여평의 제일 넓은 지역으로써 들어서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듯한 느낌과 남향이며 800m고지이면서도 전혀 높지 않다는 생각과 생기터(氣가 생하는 터)로써 여름에는 모기가 없고 선풍기가 필요없으며 공기 좋고 맑은 물이 풍부하며(백두대간의 수맥이 닿는 곳) 고령자 채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해인사→마당동→가조운현→88고속도로까지C로 이어지는 지방국도 59호선은 이곳이 중심이 되어 일부공사가 마무리된 곳입니다.

●연역 및 지명유래

· 역사의 향기를 항상 느낄 수 있는 이곳은 1300여년 전 애장왕께서 해인사를 창건하실 때 다니시던 길목이며 마장동(馬場洞)이라 했으며 왕을 보필하던 3정승이 상주 했다가하여 삼정마을이고 항상 고향산천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천년 고도의 무색지 않는 이름, 사시사철 삼림욕과 주변에 지천으로 있는 머루, 대재, 잣, 신갈기, 터미 등은 산중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투자(또는 공영)의 개요

저 자신이 이 시설을 인수(2001. 5. 31에 63억원으로 인수한 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신도회등의 후원 차입금등으로 경매를 막고 신규시설을 증설하여서 손익분기점의 시설(유료양로원의 고정적인 운영비를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120여세대 불을 맞추기 위한 정상화작업 중 초기 위 시설의 인수자금으로 활용되었던 은사스님의 유산5억원(동광문도회 복지기금)이 조기에 반환되지 못하다보니 문도회 일부 사제의 고소로 어려움을 겪던 중 입주회원의 차입금 4억여원까지 가세되어(노인에게서 차입했다는 이유로 현재 구급의 입장에 처해있다)보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여러 곳에서의 신뢰관계가 끊어지고 복지사업자체에 차질이 생길뿐더러 입주자 및 후원회의 차입금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하여 절대적인 수혈(자금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러다보니 초기의 인수금액(63억원)과 그 사이에 들어간 자금 일부만 총당하는 선에서 이 사업을 이어 인수하실 분이나 또는 저와 복지 일을 같이 하시거나 투자 하실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돈만 걸려 있으면 출출할고 적당한 분에게 넘겨드릴 수 있으나 저를 신뢰하고 맡기신 후원차입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수자 금(70억원)의 조건이 불게 됨을 양해바라오며 저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윤보다 복지의 신념을 우선으로 하는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양로원의 경우 현재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대안이며, 그러나 핵가족 시대에서 지금은 자기 자식도 낳아서 기르기 싫어하는 마당에(저출산율의 이유) 당장 당겨오는 노령문제는 사회문제가 되고 특히 종교계의 당연한 문제입니다. 저는 한 종교에 몰입과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의 복지신념과 뜻을 같이 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진심으로 사심 없이 혼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신의를 지키면서 저의 승려생활 40여년의 명예를 걸고(전 조계종 중앙선정관리위원장, 문화부장, 해인사길상삼주자, 해인사 총무국장 등) 이 시설을 회복하면서 종교복지 시설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승려가 돈 문제로 이런 광고를 내는 것은 자신 부끄럽고 다른 종도에 대한 오해와 그 후유증을 예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무명된 재정과 운영을 통하여 후원자나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그래도 최악의 경우 운영에서의 근검, 절약과 후원회들을 통한 자금책을 구해가면서 빛 청산을 이루어야 하고 둘째,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여 장래적 안전장치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권의 감시하에 연속성과 보존책이 강구되어야만 저를 도와 주신분들의 뜻에도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써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심정으로 뜻있는 분을 기다리면서 저의 원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투자금 보존방법

①의 시설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최고 한도액 30억원)에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질권 설정해 주는 방법과 ② 해인사 실버타운 앞에 6500평의 개인명(순천개)에 10억원 이상의 근저당 해드리는 채권 보존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2005년 3월 20일 해인사 실버타운 대표 송선거(송덕운)

■ 연락처 :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341 해인사실버타운 (문의 : 011-9355-3778, 신선의 관리소장)